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 본격화

-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제2차 정례회의…정책제안서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2030 자문단은 5월 25일(목) 제2차 정례회의를 갖고 청년의 내일을 위한 4대 주요 고용노동정책, 즉 ‘청년 4다리 과제’에 대한 그간의 활동상황과 정책제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 ①재학생 맞춤형고용서비스 ②지역고용전달체계 ③노동개혁 ④중대재해감축로드맵 안착

2030 자문단은 그동안 ¹⁾대·중소기업 멘토-멘티를 통해 산업안전 요령을 공유하는 ‘세이프티 콘택트(Safety Contact)’를 제안했으며, 이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평가지표에 반영됐다. ²⁾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대학 현장 점검과 찾아가는 홍보, 지역 니트 청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언을 할 예정이다. ³⁾노동개혁 과제인 공정채용법 추진과정에서 간담회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새내기 소통 리더단(이하 ‘새소리단’), 청년인턴도 참여해 ‘청년 4다리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토의했다. 새소리단은 고용노동부의 청년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직사회 혁신모임으로 조직문화 혁신 연속기획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2030자문단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고용·노동·산업안전 정책 과정 전반에 청년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2030자문단, 새소리단, 청년인턴 등 청년들이 제기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희준 (044-202-7440)
		담당자	청년보좌역	임소형 (044-202-7995)

□ (일시) '23. 5. 25.(목) 14:00~16:00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온국민소통공간

□ 참석자 <총 28명>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장

※ 새소리단, 청년인턴 등 12명

○ (2030 자문단) 청년보좌역(자문단장), 비상임 자문단원 13명

□ 주요 내용

○ '청년 4다리 과제' 추진 성과·계획 등 정책제안서 발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청년 4다리 과제'>

- ❖ (고용분과위원회 1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보완사항 발굴
- ❖ (고용분과위원회 2팀) 「지역고용」 전달체계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제시
- ❖ (노동분과위원회)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수렴 및 제언
- ❖ (산안분과위원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

○ 새소리단·청년인턴과 함께하는 과제 세부 이행방안 토의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청년보좌역
14:05~14:10(5')	· 청년고용정책관 인사말씀	
14:10~14:20(10')	· 그간의 활동 경과 보고	· 청년보좌역
14:20~15:00(40')	· 정책제안서 발표	· 각 분과위원장
15:00~15:10(10')	· 새소리단 활동계획 소개	· 담당 사무관
15:10~15:50(40')	· 세부 이행방안 토의	· 새소리단, 청년인턴
15:50~16:00(10')	· 총평 및 폐회	